

도시철도 2호선 연내 기본설계 착수

광주시 주민설명회 오늘 마무리…‘저심도경량전철’ 2016년 착공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저심도(低沈度·지하 5~7m) 경량전철’로 확정짓고 올해 연말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 설계(17개월)와 실시설계(22개월)를 거쳐 오는 2016년 착공될 예정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한 시민설명회가 13일 광주 광산구를 끝으로 끝나는 만큼 오는 25일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말 건설방식을 ‘저심도 경량전철’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일괄발주 여부 등 시행방법을 논의하고, 올해 말 총 350억여원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발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국비 예산 192

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저심도 경량전철로 건설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승강장과 본선은 도로 중앙의 교통섬과 횡단 보도를 활용해 모두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역사 규모도 최소화된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은 경량 전철인 만큼 차량 크기를 최대한 커트하게 하고, 내부 면적은 기존 1호선 차량과 동일한 크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되는 시점인 2016년에 광주 남구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 대부분은 ‘저심도 경량전철’ 건설 방식에 공감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전 구간 동시착공과 광주역~광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지난해 확정됨에 따라 5년 뒤인 2016년에 다시 기본계획 재검토 수립을 하면서 지선 건설은 검토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빠르면 오는 2018년께나 지선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심도 경량전철 방식은 지하 9m 이상 파서 전동차가 운행하는 중(重)전철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지하 5~9m를 파서 전동차가 운행하는 방식이다. 오는 2022년까지 건설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41.7 km의 확대순환선으로, 시청~월드컵 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운남~시청 구간이다. 총 소요 사업비는 1조7394억원으로 국고 60%, 시비 30%, 지방재 10%로 총당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1세기의 불교 생태환경 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12일 오후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에서 개막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에서 참가국들의 전통 등 점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종교인 화합 다진 여수 세계불교도대회

중국 으름장에 티베트 대표단 쫓겨나



석할 수 없도록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삼동 린포체와 페마 친초르 지부장 등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불교는 이번 행사 이전부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반대했다. 이들은 대규모 대표단 파견을 내세워 WFB 한국대회에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의 참석을 반대했다.

달라이 라마는 측근들을 통해 WFB 한국대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측의 반발로 조정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삼동 린포체는 달라이 라마의 최측근으로 티베트 망명정부의 첫 총리이며, 지난 2001년부터 작년 8월까지 재임했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풀체인지 The new M-Class 출시
062)226-0001**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飛上 날개짓

미래 유망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산업 기반을 다져가며 훌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일부 우수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광주시는 올해부터 영세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각종 지원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541개였던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체 수는 2010년 4294개로, 753개가 늘었다. 개인 및 만화업체가 각각 17개와 14개가 줄어든 반면, 출판과 음악, 광고 업체 등이 많이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8738명에서 1만 1422명으로 늘었고, 기업 매출액은 5043억4500만원에서 6554억1000

2009년 이후 업체수·매출액 꾸준한 증가

광주시 펀드 조성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서

만원으로 무려 1500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처럼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업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문화콘텐츠 기업(10만7155개) 중 4.01% 밖에 되지 않으며, 종사자 비중은 전국 대비 2.19%에 그치고 있다. 기업 매출액도 전국 매출 규모의 1.08%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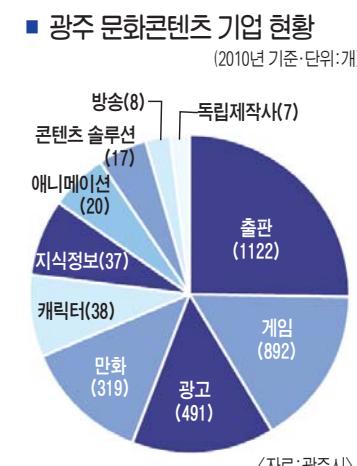
전국의 문화콘텐츠 기업 중 3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매출액도 서울이 전국의 68.2%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광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채 걸음마 단계에 머

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권역 등이 문화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광주 송암공단 내 CGI센터가 개관하는 등 인프라가 착착 구축되고, 광주시가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8개의 수도권 대형 문화산업체들이 줄줄이 광주에 등지지를 틀고, 18개 업체가 새로 생겨나면서 763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마로스튜디오, (주)씨니 사이드 등 지역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최근 국내·외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

우수상과 대상 등을 잇따라 차지하는 등 기술력과 경쟁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광주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콘텐츠 제작·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조성해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료: 광주시)

우수상과 대상 등을 잇따라 차지하는 등 기술력과 경쟁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광주 문화콘텐츠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콘텐츠 제작·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조성해 영세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대캐피탈 2012 광주 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



광주염주체육관

6. 22(금)

14:00 대한민국 vs 프랑스

6. 23(토)

14:00 대한민국 vs 이탈리아

16:30 프랑스 vs 미국

6. 24(일)

14:00 대한민국 vs 미국

16:30 프랑스 vs 이탈리아